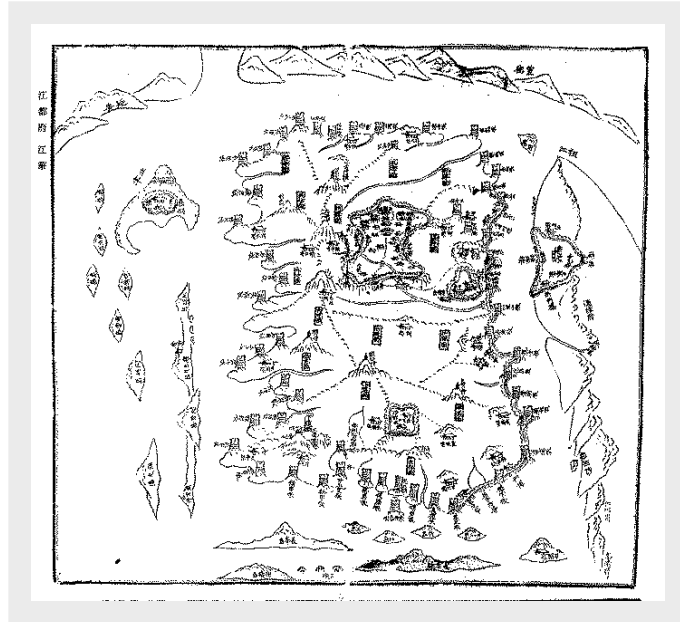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 각지의 읍지를 모아 하나로 엮다

1757년(영조 33) ~ 미상



1 개요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영조 재위시 홍문관(弘文館)에서 각 지역의 읍지(邑誌)를 모아 엮은 것이다. 기존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전국 지리지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일부 빠진 군현이 있어서 완성본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지도서』는 1973년에 한국교회사연구소 최석우 신부의 소장 서적 중에서 발견되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하였다. 관련자료 모두 55책에 314개의 읍지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각 군현의 읍지 첫머리에는 지도[도(圖)]가 있고, 그 뒤에 지리지[서(書)]가 각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다.

2 편찬 배경

조선시대에는 국가 통치상의 필요에 따라 지리지 편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 중에서 읍지(邑誌)는 국가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지방 통치와 안정적인 수취 체제를 꾀하는 수단이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중앙에서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을 편찬하였지만, 대략 16세기 이후부터는 각 군현에서도 관 주도로 읍지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군현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각기 만들어졌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두에 지도를 싣고 본문에 그 고을 현황을 항목별로 수록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쟁 극복 과정 속에서 국가 체제와 사회는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유통 경제가 활성화 되었고, 각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반면, 유민(流民) 발생으로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 현황의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조정에서는 군현 단위로 작성되었던 읍지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숙종 때까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하 여지승람)』(1530년 간행)을 활용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상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은 읍지를 그대로 써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숙종대에 좌의정 최석정(崔錫鼎)의 건의에 따라 『여지승람』의 개정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관련사료](#) 완결되지 못하였다.

『여지승람』의 개정이 다시 거론된 계기는 1757년(영조 33) 삼국지도(三國地圖) 제작이었다. 영조는 신라의 옛 터가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경주부윤을 시켜 그 지역의 지도를 그려 올리도록 하였고, 홍문관에는 삼국의 강역 조사를 명하였다. [관련사료](#) 그때 삼국지도 제작을 맡고 있던 홍양한[洪良漢, 이후 홍양호(洪良浩)로 개명]은 전국 군현 지도의 개정을 역설하였다. 그는 『여지승람』을 편찬한 지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종대 이후의 연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등본(藤本), 인본(印本)을 불문하고 각 고을의 읍지를 모아 올려보내도록 청하였다. [관련사료](#) 그리하여 영조는 홍문관에 명하여 읍지 수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영조는 홍문관에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은 것의 목록을 작성하여 바치도록 명하며 읍지 수집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사료](#) 하지만 그 수집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3 각 도의 읍지 수집 과정

『여지도서』의 읍지 수집은 1757년(영조 33) 홍양한의 발의 이후 행해졌다. 각 지역에서 올려 보낸 필사본과 인쇄본이 섞여서 수합되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1차 수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집이 완결되는 시점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재수정은 1759년(영조 35) 김응순(金應淳)이 ‘인물(人物)’ 항목에 수록된 것이 난잡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영조는 각 도에 다시 수정할 것을 명하였고, 서명응(徐命膺)은 범례를 정하여 내려 보냈다. [관련사료](#) 그 결과 읍지가 다시 수합된 때는 1765년(영조 41) 무렵이다. 이때 각 군현에서는 군현지도와 함께 어람용, 감영보관용, 홍문관용 등 세 종류의 읍지를 작성하여 올렸던 듯하다. 그리고 홍문관에서는 어람용과 홍문관용을 받아 그 중 어람용을 『여지도서』로 바쳤다. [관련사료](#)

그러나 두 번째 읍지 편찬도 마무리되지 못한 듯하다. 이후 1775년(영조 51)에도 팔도 읍지를 수집하여 『여지승람』의 속편을 만들려 한다는 관문(關文) 내용이 확인된다. [관련사료](#) 이때에도 홍문관에는 각 군현에 읍지에 포함될 항목을 범례로 정하여 주었다.

한편, 『여지도서』에서 호구를 파악한 내용을 통해 편찬 연대를 파악하기도 한다. 1759년(영조 35) 기묘장적(己卯帳籍)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료 1760년(영조 36) 이후에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지도서』 보유편(補遺編)에 있는 경상도 일부 군현의 호구조가 신묘년(辛卯年, 1771, 영조 47) 장적에 의거하고 있기도 하다.

4 책의 구성과 내용

『여지도서』는 총 55책으로, 모두 313개의 지지(地誌)가 있다. 도별로 보면, 경기도(제1책~제5책), 충청도(제6책~제13책), 강원도(제14책~제17책), 황해도(제18책~제21책), 평안도(제22책~제30책), 함경도(제31책~제35책), 경상도(제36책~제49책), 전라도(제50책~제55책)로 각기 결책되어 있다. 더불어 감영지(監營誌), 병영지(兵營誌), 수영지(水營誌), 통영지(統營誌) 등의 영지(營誌)가 17개, 진지(鎭誌) 1개가 있다. 그러나 당시 행정구역과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등 4개 도만 빠진 군현이 하나도 없고, 한성부(漢城府), 개성(開城)을 비롯하여 39개 고을이 누락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첫머리에는 군현 지도가 있다. 책 전체에 312장의 지도가 있는데, 영남여지도(嶺南輿地圖)의 서문에 “정간(井間)을 그려서 한 칸을 십 리로 했다. 산골짜기의 경우 그 등성이와 줄기만 표시하고 그 번잡한 부분은 뺐다. 강물의 경우는 그 원류만 자세히 표시하고 그 세세한 부분은 대충 처리하였다.”, “무릇 기개 고을의 산천과 강도가 책상 위에 일목요연하게 펼쳐졌다.” 관련사료 는 글이 있어 제작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각 군현마다 화공(畵工)이 배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군현에서는 감영·병영·수영의 화원들에게 부탁하여 군현지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대부분 기존에 전해오던 지도들을 모사한 경우가 많았다.

지도 뒤에는 지역 현황을 설명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체로 강역(疆域), 방리(坊里, 호구 포함), 도로(道路),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官職), 산천(山川), 성씨(姓氏), 풍속(風俗), 능침(陵寢), 단묘(壇廟), 제언(堤堰), 창고(倉庫), 목장(牧場), 봉수(烽燧), 물산(物産), 교량(橋梁), 역원(驛院), 누정(樓亭), 사찰(寺刹), 고적(古蹟), 인물(人物),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전세(田稅), 대동(大同), 군병(軍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내용은 『여지승람』의 기본 구성에 사회·경제·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었다. 『여지승람』보다 호구 파악도 세밀해졌고, 전결(田結)·진공(進貢)·군병(軍兵)·도로망 등 각 지역에 대한 설명도 더욱 구체적이다.

5 사료적 가치

『여지도서』는 각 도에서 필사본 형태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묶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록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아예 고을 자체가 빠져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전국의 모든 군현을 망라하지 못해서, 연구자들은 『여지도서』가 원래부터 불완전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일부가 유실된 것인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 아무튼 공식적인 간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미완성의 지리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지도서』는 동일한 시기에 국가 기관을 통해 전국적으로 편찬하여 한 시대의 거의 모든 국토를 망라하는 읍지이다. 기본 읍지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를 담고 있다. 각 지방 관아에서 작성한 원본 그대로를 수합한 것이라 자료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같은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나름의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된 기록물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또한 그 내용이 영조 재위기 지방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시 지방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